

폭염 대처사업비 6억6천만원 지원

도, 특교세 3억6000만원 재난기금 3억원 긴급투입

전북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더위로 도민 폭염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통하여 폭염긴급대책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교부세 3억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4300만원, 시군 자체사업 3억900만원 등 8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그늘막 134개소를 설치, 공공장소 얼음비치 38개소, 매일 19대(누계 171대 2,774km)의 살수차를 투입, 주요도로 살수작업 등 시군을 통한 폭염저감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운영질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정비를 위해 1억65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전기료 지원 49억1400만원, 축사 환경개선(환풍기, 제빙기 등) 지원 11억200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4일, 행정안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램은 이것'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25일 전북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부 특별교부세 3억6천만원이 통보됨에 따라, 도 및 시군 재난관리기금 39억원을 추가하여 6억6000만원을 긴급 지원토록 지시했다.

이번 예산지원으로 시군에서는 주요도로 살수차량 운영을 확대하고 무더위쉼터에 휴대용 파라솔을 지원 하는 등 어르신들의 폭염피해 최소

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살수 차량 인대에 의존하는 시군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군 관용 트럭을 활용한 살수장비 확보를 위해 물탱크를 갖출 계획이며, 물탱크가 확보되면 수시로 트럭을 활용한 살수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송하진 지사는 폭염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민 스스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진성 기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활성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미생물산업센터에서 전략 포럼 열어 산·학·연·관 상생 협력방안 모색... 입주기업과 협약도

정읍시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인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센터장 김대혁, 이하 육성지원센터)가 주관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활성화 전략 포럼'이 25일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전북대학교와 농림부, 농진청, 전북도, 정읍시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기관장, 입주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기념식과 학술대회(1, 2부)로 진행됐다.

먼저,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8명이 발표에 나섰다.

먼저 1부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유익 장내 미생물 공생과 활용 정을 예로 축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전북대학교 허재영 교수 ▲농업용 유용 미생물의 현장 활용 기술 개발, 국립농업과학원 송재경 연구관 ▲돼지 장내 미생물총 기반 질병관리 방안,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 ▲농축산용 마이크로바이옴 현황 및 전망, 연세대학교 김지현 교수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허재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을 이어가며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산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짧은 휴식 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주제는 ▲유익 장내 미생물 활용 양돈 솔루션 적용 돈육 브랜딩 사례(두지프로바이오틱스 윤진원 상무) ▲농축산용미생물센터 소개 및 산업화 지원(농축산용미생물센터 김양선 팀

장) ▲미생물 유래 유인제를 활용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마이크로자임 심영근 대표) ▲다중 메타오믹스 기반 전분발효식품 발효 특성 및 핵심 미생물 규명(중앙대학교 전체육 교수)이다.

2부에서는 김진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미생물 활용 친환경 병해충 방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와 미생물 유전체전략연구사업단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대혁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 방법 등을 설명하고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과 연계된 R&D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이남호 전북대 총장의 환영사, 농림부와 농업과학원 관계자, 유진섭 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유 시장은 이날 "첨단과학산업 기반을 네트워크화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R&D(산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해 축산축적 등 지역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센터 입주기업인(주)마이크로자임과 정읍시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어업인 생명·재산피해 줄인다

전북도 5톤이하 영세 소형어선 해상 안전사고 예방 위해 소방·구명·항해 안전장비 지원에 올해 6억원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2억·소형어선 장비지원 4억

전북도에서는 5톤이하 영세 소형어선의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총 6억원(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2억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톤미만 소형어선에 자동 소화시스템, 구명조끼 등 총 403대(자동소화시스템38, 구명조끼273, 초단파대무선전화92)를 지원하기 위해 총 2억1200만원(국비63.6, 도비19.1, 시군비44.5, 자담84.8)이 지원된다.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은 영세 소

형어선의 안전장비 보급을 통하여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톤이하의 영세 소형어선에 GPS프로타, 어군탐지기, 레이더, 그물인양기, 자동조타장치 등 총 100대(군산86, 김제14)를 보급하기 위해 총 4억원(도비84, 시군비196, 자담120)을 지원한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203대/7억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196대/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 김대건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 안전장비 보급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도중 원광대 총장, 경영대상 수상

참교육경영 부문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이 '2018 TV조선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TV조선 경영대상은 진정으로 요구되는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줄 경영전략을 갖춘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산·학·연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종합 선정 심사를 거쳐 참교육경영, 고객만족, 지속가능, 창조경영, 브랜드경영 분야를 비롯해 총 10개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렸으며, 김도중 총장은 탁월한 교육정책은 물론 창조와 혁신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양성을 인정받아 참교육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김도중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문화지본주의와 같은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학교육도 융·복합적인 개별맞춤 창업교육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고, 학과기업-연구소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협업형 대학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등 창의적인 문화인재 양성 및 대학의 재도약기반을 마련해 자생력 있는 미래형 대학 만들기에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도중 총장은 "지금의 성과를 넘어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등 지속해서 대학역량을 키우고, 5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과 실업률로 사농공상 직능일체형 인재양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도 새마을회, 라오스서 학교시설 보수공사

전라북도 새마을회(회장 박명자)는 2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시범지역인 라오스 비엔티엔주 무앙타라쿰군 통감초등학교에서 '학교시설 보수공사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공향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학교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실과 운동장, 화장실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새마을회 차원의 모금운동과 현지 군청의 협조, 마을 주민들의 노력 봉사로 사업의 효율을 높였다.

회원 16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장학금 전달 8명, 후원물품 전달(학용품, 체육기구, 신발, 의류, 의약품), 해외봉사단의 사물놀이, 라오스



민요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벽면 페인팅, 책걸상 리폼작업 등 직접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전북 Y-SMU포럼에서는 31일까지 동안 20명의 봉사단이 파견되어 한글, 태권도, 과학, 공예 등 한류열풍에 맞는 다양한 문화보급 프로그램과 학교시설 보수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방세혁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0년대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로 민주화와 세계13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처럼, 꿈과 희망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한다면 라오스도 기적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